

2024년 5월 17일

문화재청이
‘국가유산청’으로
바뀝니다



문화재청

196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체계

이 문화재의 가치는
123억 원!

사람과 자연을
사물이라 표현



재물 재(財)



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(文化財) 용어는
재화적 가치와 **사물적 관점**을 뜻합니다

과거와 현재, 미래를 아우르는

‘국가유산(國家遺産)’



시대 흐름에 맞춰
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,
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합니다

문화재

유형문화재

기념물(사적지류)

민속문화재

기념물(명승류, 천연기념물류)

무형문화재

국가유산

문화유산

- 유형문화유산
- 기념물(사적지류)
- 민속문화유산

자연유산

- 명승류
- 천연기념물류

무형유산

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
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

국가유산 복지



기후위기 대응



지역·공동체 기여



산업 육성



미래유산 보호



국민과 함께 누리는
미래가치, 국가유산

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**국가유산으로**
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



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하며,
창조적으로 계승·발전시켜
미래세대에 전하겠습니다

국가유산,

미래를 담은

문화재의 새 이름입니다